

장수군 축제 35억 이상 경제효과

제1회 쿨밸리페스티벌·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결과보고회 개최

올해 장수군에서 개최된 제1회 쿨밸리페스티벌과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해 35억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및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결과보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임정택 장수계곡축제추진위원장, 김흥기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두 축제에서 추진된 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쿨밸리페스티벌은 기존 10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2일만 진행됐다.

그러나 장수군 대표 여름 휴양지인 방화동 자연휴양림을 활용해 에어풀장, 맨손 송어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를 동안 방문객 총 2,100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 많은 사람들에게 쿨밸리페스티벌을 홍보하고 내년 축제를 기대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및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는 총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며 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고 장수 누리파크에 조성한 유압형 가족정원, 국화 전시 등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더욱 매력적인 축제장을 구성했다는 총평이 나왔다.

총평에 이어 보고회 참석자들은 내년도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 등을 나누며 의

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새롭게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양 축제의 주제에 맞는 적극적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그리고 축제 마케팅 등을 개선해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4년 쿨밸리페스티벌 및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결과보고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발전가능한 축제, 변화된 모습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 열려

성과 공유·시상식 등 진행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인 진안군이 지난달 31일 진안군 문체체육회관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든! 통(通)하는 진안 주민자치! 평생학습!'을 주제로 제15회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은 평생학습의 촉진을 통한 개인적 삶과 공동체의 변화, 평생교육 참여 주체들의 능력 확대, 성과공유를 통한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문화축제이다.

진안군은 2001년 10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학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올해 15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의 진안군 평생학습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평생학습 참가자

들의 성과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황을 이뤘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자기계발에 힘써 온 읍·면 평생학습인 11명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학습인 2명과 평생교육자상 1명 등이 군수상을 수상했으며, 주민자치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9명에 대해서도 시상식을 가졌다.

이밖에도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전시회와 발표회를 비롯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훈성 진안군수는 "평생학습 성과를 군민들과 나눠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평생학습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학습이 군민 삶의 일부로 스며들어 더불어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양파 적기 정식 당부

장수군이 양파 적기 정식 및 월동 전 안정생산을 위해 관내 양파 농가에 11월 상순까지 정식(이주심기)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양파 정식시기가 이르면 식물체가 크게 자라 분구 및 추대 가능성이 크고, 늦어지면 뿌리의 발육이 충분치 못해 동해나 건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 정식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양파 농가에 관리요령을 담은 영농자료를 제공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 평균 15°C가 되는 때(10월 하순~11월 상순)에 정식하도록 영농 지도하고 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수군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세에 있는 만큼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재배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지난달 31일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마쳐

무주군, 재난 현장·재난안전상황실서 동시 진행

무주군이 지난달 31일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해 무주국민체육센터에 화재와 붕괴 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올해는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종합훈련(실행기반 훈련 +토론키반 훈련)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목표는 '달은 타임(사건 발생 후 30분)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무주군을 비롯한 무주소방서와 무주경찰서, 육군 773부대 1대대, 한전무주지사, KT무주지사,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기업, 그리고 군민체합단 등 2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난 발생 초기 상황전파와 현장 대처,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의 체계 전환, △지역주민 현장훈련 참여와 역할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진 규모 6.5로 인

한 건물 일부 붕괴와 화재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화재진압과 복구, 환자 이송 등을 훈련했다.

같은 시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살펴며 긴급 조치 사항 등의 확인과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 연락관 파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재민 관리를 비롯한 수습 복구 활동 장기화 대비한 토의를 진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강평을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재난 유형에 초점을 맞춰 현실감을 더하고 현장과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는 종합훈련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훈련을 진행하면서 다소 부족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역할을 재검토하고 지역 사회와도 공유해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면 지사협, '맞춤형 헬스케어' 영양제 지원

무주군은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31일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맞춤형 영양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양제 전달은 '맞춤형 헬스케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비타민'과 '유산균'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업과도 연계해 기초검진(혈압 및 혈당 체크)을 진행하고 맞춤형 건강검진 물품 등(식사 대용식)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각 가



영양제 방문하는 일대일 결연도 맺어 영양제 복용 및 건강 안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따른 집중 홍보 나서

진안군이 오는 11월 23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점영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점영업, 도·소매업 등 업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가락,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당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달 23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로 앞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약 500개소에 안내장을 전달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각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같이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남은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사업장 방문 지도 등에 집중해 사명 홍보를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진안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0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실시간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실시간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